

# 3개월 실전경험... 전남 '청년키움식당' 문 열었다

목돈 없이 도심 창업 기회  
올해 전국 5곳으로 확대  
목포 '꽃길' 1차 사업 진행중  
임대료·전문가 컨설팅 지원  
전남도, 4개팀 추가 공모



목포 청년 4명으로 구성된 '세얼간이' 팀

'맛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남지역의 청년들이 외식업 창업에 '실패'하지 않고 돌기 위한 '꽃길'이 문을 열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최악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외식업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IT나 제조업 등 기술 분야 창업보다 외식업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청년키움식당'은 효과적인 창업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시 상동 1124-5번지에 문을 연 청년키움식당 목포점 '꽃길'은 115.7㎡(35평) 규모로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목포평화광장 인근으로 목포 도심에서 상권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외식업 창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개



목포시 상동에 지난 5일 문을 연 청년키움식당 목포점 '꽃길'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 ■ 청년키움식당 목포점 '꽃길' 참여하면

2~3개월 직접 운영	업계 최고 전문가 창업컨설팅·멘토링·상품메뉴 개발 지원
	↓
	점포·임대료 무상 제공

권, 즉 '목(物)이 좋은 자리에 가게를 여는 것이다. 이 식당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고객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청년키움식당 목포점 꽃길'은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공모에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점포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컨설팅과 운영멘토링, 홍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개소(서울 양재동 에이토랑)였던 '청년키움식당'을 올해 서울 녹번동, 경기 성남, 전북 완주, 전남 목포에 추가 개설해 총 5개소로 확대했다. 기존 참가팀의 운영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 상태다.

청년들이 실제 자신들의 아이템과 음식을 일정기간 가게를 운영하는 등 '실전경험'을 쌓은 뒤 문제점과 보완점,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어 실질적인 '인큐베

이팅'이 가능하다.

2~3개월의 입주기간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참가팀의 몫으로, 임대료가 없고 주방시설 등 인테리어가 완성돼 있어 초기 투자비가 없다. 다만,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비와 수도 및 가스 사용료 등 소모성 경비는 참가자들이 부담해야하지만, 상권이 좋기 때문에 기본 고객확보가 가능해 큰 부담이 없다.

현재 목포점 1차 사업에 참가한 팀은 목포 지역 청년 4명으로 구성된 '세얼간이' 팀이다. 각자 푸드트럭 운영과 외식업계 등에 종사한 동네친구들이다. 오는 5월까지 '감동주막'이라는 상호명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서 자란 채소와 해산물 등 식재료를 활용한 전, 전짜개 등 음식과 전남에서 생산된 막걸리 등을 판매한다.

무엇보다 '청년키움식당 목포점 꽃길'이 다른 점포와 다른점은 외식업 컨설팅계 최고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창업컨설팅을 돕는다는 점이다.

전남도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가한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임대보증금을 직접 투자하는 등 재능기부 형식으로 청년창업을 돕기로 했다.

목포 중앙 먹통시장 특화장터 창업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남행열차포차', '산수육면가', '청원모밀', '용강추어

탕' 등 다수 기관·업체 총괄 컨설팅 경험이 있는 박진석 컨설턴트가 사업현장책임자로 나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국내 외식업계 대기업인 CJ프레시웨이 출신의 송영재씨를 대표로, CJ프레시웨이 등에서 해외급식·메뉴관리·한국식문화 등 관련 업계에서 활약했던 우은정씨가 상품메뉴 개발 등을 돕는다.

박진석 현장책임자는 "실업난과 창업인기에 외식업 창업에 나선 지역 후배들이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앉는 일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맛의 고장 남도에서 성공적인 외식업 창업 사례를 만들어 전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 2018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키움식당 목포점 꽃길' 신청대상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전남지역 청년(만 20세~39세 이하) 누구나 가능하다. 2인 이상 팀으로 팀원 중 1명은 외식업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며 올해 총 4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이메일(yjcenter2018@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 효율적인 주방설계

처음으로 외식업에 뛰어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주방의 구성과 설계다.

물론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본사가 가장 효율적인 주방시스템을 구성하여 제공하기에 딱히 예비창업자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독립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주방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한 상태이기에 주방 구성시 오류를 범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급 예정인 메뉴와 주방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왜 외식업에서 주방의 구성과 설계는 사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한번 주방의 규모와 구성이 세팅되면 나중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도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홀의 크기를 극대화하여 한 테이블이라도 더 홀에 채워야 하는 공간활용의 특성상 대개의 주방은 가장 효율적이되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런 경향은 비싼 임대료로 인해 매장구성을 최대한 알차게 설계하여 홀의 테이블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하는 이중고에 따른 결과다.

주방의 구성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취급메뉴에 따라 가장 단축된 조리동선과 이에 맞는 관련 주방기기의 효율적인 배치의 기술이다. 고로, 가장 이상적인 주방설계를 하려면 먼저 취급하려는 전체 메뉴와 각 메뉴별 조리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주방기기를 엄선하여 가장 실효적이고 단축된 조리동선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외식업소 컨설턴트들이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방기기의 배치와 조리동선에 대한 분석이다.

각 메뉴별 조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취급하는 메뉴의 조리시간을 체크하여 잘못 설계된 조리동선을 수정하여 주방기기의 재배치를 통한 조리시간의 단축이 그 목적이다.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주방은 단순히 조리시간의 오버타임이라는 단점만을 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주방인원의 추가 고용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주방구성 및 설계시 기준은 필요하다. 그 기준의 핵심을 살펴보면 주방과 홀 사이에는 배식구와 퇴식구라는 2개의 루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방의 구성과 조리동선은 그 2개의 루트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배식구는 조리된 메뉴가 홀 쪽으로 나오는 통로이기에 조리동선과 관련 주방기기는 그 배식구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 및 배치되어야 한다. 퇴식구는 식기들의 퇴로다. 그렇기에 크게 잔반처리와 식기세척 관련 처리동선과 관련 주방기기가 효율적으로 구성 및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리동선과 처리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빠른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방구성과 설계의 핵심이다.

외식업은 생산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업종이다. 생산공간인 주방의 잘못된 설계와 배치는 조리의 속도를 더디게 하여 결국 고객의 웨이팅타이머이 길어지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사업자에게는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비효율적인 지출요인을 파생시킨다. 그렇기에 주방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창업기간을 단축해 점포를 운영하기보다는 오피스시점이 미뤄지더라도 충분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 창업전략연구소장>

## 광주전남중기청, 30일까지 R&D자금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8일 4차산업혁명에 대비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과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 분야 중소기업에 R&D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이 기획, 평가, 선정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다.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27억원의 사업비로 광주 3개사, 전남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3억9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광주시는 명품중소기업 및 PRE-명품중소기업을 인증받은 기업, 전남도는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및 광주전남중기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으로 한정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총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중진공 광주본부, 간접광고비 50% 지원

### 12일까지 공모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주상식)는 오는 12일 낮 12시까지 '2018년도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비재 생산·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접광고 비용(50%)을 지원하고, 촬영현장·광고청약 대응 등 간접광고(PPL)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1차 사업에 신청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은 라인업은 '나혼자산다'(MBC), '해피시

터즈'(SBS), '해피투게더3'(KBS), '아빠본색'(채널A) 등 15개다.

주상식 본부장은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라인업을 통해 고객맞춤형 간접광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방송사·미디어랩사와 협업을 통해 노출장면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이 사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제품 간접광고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016 IDFA 암스테르담국제영화제  
2017 영국 세필드국제다큐영화제  
2017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들리나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모니

## 바나나송의 기적

Singing with Angry Bird

2018.03 대개봉

김재창×바나나합창단 감독 송우용 지혜원 제작 바른미디어 배급 (주)영화사 그램 | CBS

다음 카카오토리펀딩을 통해 현지 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바나나송의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한 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기적을 선물해주세요.  
 ※펀딩 참여방법 ▶ 검색창에 바나나송의 기적 스토리펀딩 을 검색해보세요! <https://storyfunding.kakao.com>